

일본 군마사업소를 다녀와서

육류등급부
농학박사 고 경 철

외국의 육류등급 판정 요령을 습득하여 우리나라 등급업무의 기술향상과 향후 육류등급제 본격적인 실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서 본인과 육류등급부 직원 1명(최승덕)의 해외 연수가 1991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박5일의 일정으로 日本國 群馬縣 高崎市所在 (社)日本食肉格付協會 關東支所 群馬事業所에서 다음 표의 일정으로 실시되었다.

研修日程 및 內容

日 字	內 容
12. 16.	○出國(서울→東京→高崎)
12. 17.	○等級判定 見學 및 競賣過程 參觀 ○食肉御賣市場 各 處理過程 見學
12. 18.	○等級判定 實習 ○江原養豚場 訪問(高崎市 所在)
12. 19.	○等級判定 實習 및 成績 調査 ○綜合評價
12. 20.	○歸國(高崎→東京→서울)

上記 群馬事業所는 90년도에 본회 육류등급부 직원들이 연수한 바 있고 그 때부터 본회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연유에서인지 우리들은 그리 낯설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더욱이 우리가 도착한 날에는 계양대에 태극기가 일장기와 더불어 펄럭이고 있었다.

群馬事業所는 1일 평균 소 80여두, 돼지 2,700여두를 등급판정하고 있는데 우에노 소장의 8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근무시간은 8시 30분부터 5시까지 인데 우리가 도착한 8시경에는 직원들이 이미 출근하여 9시에

시작되는 등급판정업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등급판정은 소도체 등급판정 1개조(2인 1조)와 돼지도체 2개조(2인 1조)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시행하고 오후에는 돼지도체에 대한 등급판정만 1시부터 2시 30분경까지 물량에 따라 시행하고 있었다. 경매는 소도체와 돼지도체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오후 1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첫날 하루를 지내면서 일본에서는 도체 등급제가 이미 육류유통과정의 일부분이 되어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등급제 실시 30년의 연륜이 이를 말해주고 있었다.

연수 첫날 오전 돼지 도체 등급판정 견학시 각별히 눈에 띈 점은 도매시장의 건물은 내부구조가 도축실, 등급판정실, 경매장, 냉장실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도축부터 경매후까지의 흐름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부가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분할된 돼지 도체가 도축실에서 등급 판정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2-3명의 인부가 수세된 도체 표면의 물기를 훑어 내리면서 상품으로서의 최종 마무리를 끝낸 후 성별을 구분하여 거세돈은 이쪽, 암퇘지는 저쪽의 등급판정 라인으로 옮겼다. 이러한 성별구분은 등급판정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주된 이유는 뒤에 언급될 경매에의 상장방식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성별이 구별되어 등급판정 라인으로 들어오면서 도체중이 측정되는데 도체중은 갈비 안쪽에 기입된다. 그후 등급사가 등급판정하는데 도체를 이리저리 살피면서 판정항목을 기록자에게 무선으로 불러 주고 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등지방두께를 자로 직접 측정하는 것

이 아니라 눈짐작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다년간에 걸친 반복적인 훈련의 결과이기에 실제로 측정된 수치와의 오차는 거의 없다고 한다. 자로 재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도축라인의 속도를 가능한 한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판단되었다.

등급판정된 돼지 도체는 등급별, 체중별(5kg 범위)로 다시 구별하여 정렬해 놓는다. 이는 경매에 상장될 때 같은 등급이면서 비슷한 체중의 돼지도체를 20두 이내로 하여 무더기로 상장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경매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다. 경락 돼지도체는 그 무더기의 선두와 후미에 매참인의 번호가 적힌 꼬리표에 의해 돼지도체 300두씩 수용할 수 있는 냉장실에 매참인별로 나란히 정렬되어 반출하기에 편리하게 운용되었다. 돼지도체 2,700여두 경매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 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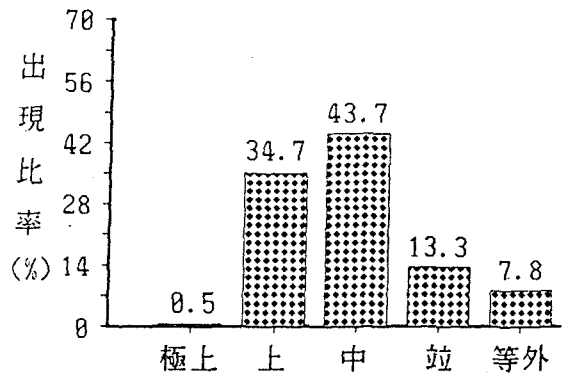
경매장은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었으며 전광판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어 경매 상황의 흐름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경매인이 설정한 최저가격으로부터 경매가 시작되어 매참인마다 지급된 무선 발신기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제시가격이 올라가는데 끝까지 누르고 있는 매참인, 즉 최고가격을 제시한 매참인이 결정되면 전광판에 매참인의 번호와 경락가격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경락은 경쟁적으로 결정되고 있었다.

1990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동안 돼지도체 등급별 출현 비율은 極上 0.5%, 上 34.7%, 中 43.7%, 並 13.3%, 等外 7.8%이었는데 '上'등급이상은 35.2%이었다(<그림 1> 참조).

연수 제2일 제에는 소도체 등급판정을 견학과 동시에 실습하였다. 9시부터 냉장실내에서 등급판정이 시작되는데 육량등급 및 육질등급 판정항목들을 판정기록표에 기입한 뒤 냉장실 옆에 위치한 경매실로 와서 매참인석(席)에 앉아 육량등급을 계산하여 최종 육량, 육질등급을 부여한다. 의자 밑에서는 스텝이 나오고 있어서 차가운 몸을 녹일 수 있었다. 최종 등

급을 기록하면서 재차 판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소도체를 재판정한 후, 등급이 확정된 도체에 판정인을 날인한다. 이 때가 11시반 전후가 되는데 이로써 오후 1시에 시작되는 경매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는 것이다. 이때에 경매사 또한 경매에 상장될 도체들을 일일이 점검하여 경매 개시 가격을 결정하여 경매시 경매 개시 가격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림 1> 豚 屠體 等級別 出現 比率



경매되는 소의 축종은 和牛, 乳牛, 雜種(F1)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잡종은 주로 화우와 유우(홀스타인종)의 교잡우라고 한다. 출하자는 도매시장에 출하시 축종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교잡우를 '화우' 또는 '잡종'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축종을 어느 것으로 신고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출하자의 양심에 달려 있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교잡우의 경우 체형에서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 정확한 교잡도는 교잡을 관장한 생산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이다.

출하체중을 750kg으로 하였을 때 乳牛의 출하월령이 和牛보다 짧기 때문에 교잡우의 출하시기는 화우와 유우의 중간이며 육질은 유우와 유사하지만 경매가격은 和牛에 가깝다고 한다. 1990년도 群馬事業所에서 등급판정한 물량은 和牛 4,438두, 乳用牛 10,566두, 雜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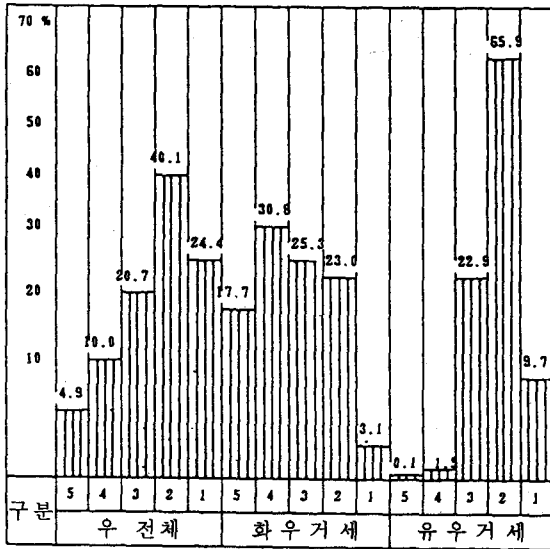
275두, 計 15,279두로서 각기 29%, 69%, 2%를 차지하고 있었다. 各其 畜種에서의 육질 등급별 분포도는 <표 2>에 보여진 바와 같은데 육질등급별 출현비율은 5등급 4.9%, 4등급 10.0%, 3등급 20.7%, 2등급 40.1%, 그리고 1등급 24.4%이었다.

和牛의 경우 全部 去勢牛이며, 乳牛 肥肉牛의 경우도 全量 去勢牛이다.

和牛 去勢의 육질등급 출현비율은 5등급 17.7%, 4등급 30.8%, 3등급 25.3%, 2등급 23.0%, 1등급 3.1%이며, 乳牛 去勢의 경우 5등급 0.1%, 4등급 1.5%, 3등급 22.9%, 2등급 65.9%, 1등급 9.7%이다.

和牛 去勢의 경우 48.5%가 肉質等級 4등급 이상인 고급육으로 판정되었으나, 乳牛去勢의 경우 겨우 1.6%만이 4등급 이상의 고급육이었다.

<그림 2> 牛 屠體 肉質等級別 出現比率



연수 제2일 오후에 방문한 江原養豚은 群馬縣에서 가장 우수한 양돈장이라고 자부하는 양돈장으로서 양돈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축산 분뇨처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돈분은 유기질 비료로 이용하고 오줌은 BOD 10-15ppm 수준으로 처리하여 방출하고 있었다. 모든 시설은 자동화되어 있기에 상시 사육두수 1,600두를 가족노동 1.5인과 고용노동 1인으로 관

리하고 있었다. 또한 모든 과정을 생산비 개념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으며 육질이 우수한 비육돈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프로그램에 따라 비육후기 사료를 일정기간 정확히 급여하고 있었다.

제3일에는 소·돼지 도체를 등급별로 사진 촬영하여 향후 등급사교육에 이용하고자 하였으며, 다시한번 일일 일과를 관찰한 후 우에노 소장과의 종합평가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3일간의 연수를 마무리하였다.

짧은 기간이었기에 정확히 파악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줄여 소감을 말한다면, 육류등급제는 일본의 육류유통에 있어서 그 기능을 심분 발휘하고 있었으며, 도매시장 운영체계는 판매자의 입장보다는 구매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식육도 하나의 상품으로서, 소비자(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시점에는 위생상 청결하고 외관상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었다.

國家的인 次元에서 日本도 UR이나 농산물 개방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지만 하나의 도매시장인 郡마현 도매시장에서는 그러한 외부적인 변화는 크게 느끼지 못하였다. 이러한 것은 그들은 개방에 대응한 준비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이라.

십 여년전 대학 4년때 들은 교수님 한 분의 말씀이 생각난다. 동서대립(이념체제의 대립)보다는 남북대립(경제대국과 소국간의 대립)으로 세계는 바뀌어질 것이라라는 말씀. 소련의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이념의 대립은 균형을 잃고 있다. UR협상을 통한 농산물 개방 압력은 “남북대립”의 전조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개방압력은 마치 19세기 말에 있었던 “開國” 압력과 흡사하게 느껴진다.

개국을 할 것인지 쇄국을 할 것인지 고민 끝에 쇄국을 결정한 대원군. 쇄국을 한 후 외세의 압력에 의해 개국한 후 한일합병으로 진행되었던 우리의 과거. 농산물 개방과 자국농업 보호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우리의 현실. 일백년 전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혜와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다.